

정읍시 내년 예산 확보 발빠른 행보

신규사업 추가 발굴 보고회 1635억 규모 13개 사업 추가 미술관 건립·웰니스 시설 조성 등



이학수(오른쪽 첫번째) 정읍시장 주재로 정읍시의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추가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에 나섰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추가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과 인구·환경변화 대응사업, 첨단과학 신성장동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 회의에서는 총 1635억원 13개 사업이 추가 발굴사업으로 보고됐다.

주요 내용은 ▲인물 중심의 특화된 미술관 건립(400억원) ▲치유와 힐링, 웰니스(웰빙+피트니스)관광 거점시설 조성(200억원) ▲반려동물의약품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고도화(200억원) ▲감염병 대비 RI-ADME 평가 플랫폼 구축(200억원) ▲국정지구 배수개선사업(155억원)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120억원)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120억원) ▲입암처리분구 2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88억원) 등이다.

시는 전복자치도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예산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국·도비 확보는 정읍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설득력 있고 빈틈없는 논리를 개발하고 관계부처 방문 설명과 공감대 형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130돌' 동학혁명, 세계화 기반 다진다

올해 국제 학술대회·내년 유교 수련원 개소 등 추진계획 발표

올해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동학혁명의 세계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지난 16일 문화행정국 담당 6개 과와 1개 소가 주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는 이사규 문화행정국장이 맡았다.

정읍시는 올해 130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19일에는 이병 말복장터와 고부관아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봉기 재현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전국 17개 동학 관련 단체와 유족, 정읍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다.

또 동학농민혁명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세계 혁명도시들과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무성서원 유교 수련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벚꽃축제는 다음 달 29일부터 4월1일까지

정읍천 일대 삼골다라-정동교에서 진행한다.

"한국 가요촌 달하"는 오는 4월까지 시설 확충을 마무리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정읍 시립미술관·박물관 특별기획전시 ▲가고 싶은 관광 도시 정읍의 축제 ▲정읍전-정읍역 연계 관광 명소 조성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정확한 결산 및 시민 중심 찾아가는 결산설명회 추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 ▲정읍 설화 그림책 제작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사규 국장은 "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에 힘쓰겠다"며 "동학농민혁명 도시로서 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옛 비사벌콘도 부지, 달빛정원으로 새생명

남원관광단지 내 31년간 방치...115억 투입 미디어아트 전시실 등

남원시는 남원관광단지 내 31년간 장기 방치됐던 옛 비사벌콘도 부지에 달빛 정원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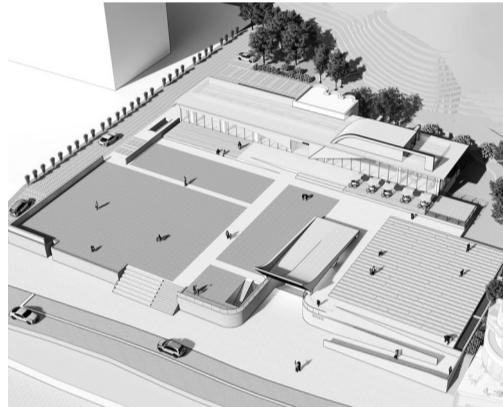
지난 16일 착공에 들어간 '달빛 정원 조성공사'는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RE-PLUS)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진행된다. 국비 30억원 포함 총 1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하·지상 1층, 연면적 3829㎡ 규모로 실감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및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축 및 미디어아트 설계를 완료했고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주변 관광시설인 춘향테마파크, 광한루원, 함파아트밸리와 연계해 새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상의 품질관리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명품 관광시설로 남원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관광단지 내에 들어서는 '달빛 정원' 조감도. <남원시 제공>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춘향제 소원등 매달기 신청하세요

5월10일~16일 광한루 일원...4월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남원시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94회 춘향제'의 '소원등 매달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5월10일~16일 열릴 예정인 제94회 남원춘향제는 '춘향, COLOR(컬러) 변화하다'란 주제로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린다.

'소원등 매달기'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4월 5일까지 지역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 신청자 중 선정된 사람에 한해 각자의 소원 메시지가 담긴 소원등을 춘향제 기간 요천수변 등지에 내걸고 환하게 불을 밝힐 예정이다. 비용은 9000원이다.

사전 신청을 놓친 이들은 축제기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해 소원등 매달기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무도회, 대동길놀이 등 한복

을 입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소원등 매달기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며 "'춘향, COLOR(컬러) 변화하다'란 주제에 맞춰 다양한 색상의 소원등에 일제히 불을 밝혀 뜻깊고 아름다운 5월의 밤을 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헌혈증서 288매 '사랑 나눔'

중증질환 등 수혈 필요 주민 1인 최대 20매...보건소 방문 신청

고창군이 수혈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기증헌혈증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 '고창군 ABO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기탁받은 헌혈증서 288매를 이달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배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서 중증질환이나 장기이식 등으로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주민을 비롯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헌혈증서 기증자 등이다. 인당 1회 최대 20매,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헌혈증서를 받으려는 주민은 환자 또는 보호자

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헌혈증서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나 수혈내역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환자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유병률 고창군보건소장은 "이번 헌혈증서 지원으로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민 건강 지킴이 '마을주치의'

보건소, 경로당 등 찾아 건강상담...지난해 1만7193명 참여

고창군 보건소는 지난해 진행한 '마을주치의' 사업에 주민 1만7193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창군 보건소는 지난해 604개 지역 모든 경로당과 섬마을을 찾아 기초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주치의' 사업은 심박수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고혈압과 관절염 등 농촌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5만 1701명)의 38.3% 비중을 차지하는 1만9839명에 달한다.

하지만 58개 병·의원 가운데 40곳(68%)이 고창읍에 몰려있다.

고창군은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한의사)을 마을별 담당 주치의로 지정했다.

보건업무 담당자 2-3명이 조를 이룬 총 13개 팀(67명)이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갔다.

마을주치의는 기초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건강상담, 치매조기검진, 노년기 우울증 예방관리, 건강 생활실천(영양·금연·절주·구강·신체활동·심뇌혈관 예방관리), 국가 암 검진, 감염병 예방관리, 계절별 폭염·한파 건강관리 안내 등을 담당한다.

심박수 고창군수는 "마을주치의의 사제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의료취약마을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